

"시체를 태우며 살아보니... 죽음 더 얘기하고 만져져야" 100만 유튜버 장의사의 조언

100만 구독자 LA장의사 유튜버, 케이틀린 도티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 죽음 더 존중받아야"
"장의사는 최고 직업... 시체 접하며 생의 감각 빛나"
"사랑하는 이가 떠날 때, 시신 돌보면 슬픔 더 잘 이겨"
"죽음은 추상 아냐, 자주 이야기해야 불안 사라져"



삶의 끝이 아닌 삶의 한 가운데에서 죽음을 그려본다. 정육점의 고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모두 미래의 시체'라던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이 생각난다. 우리는 모두 앞으로 시신이 될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떠난 자를 찬찬히 관찰하며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었던가.

대부분의 인간은 요양원이나 병원처럼 의학적 환경에서 죽는다. 그리고 섭씨 4.4도 이하의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장의사의 냉장고로 이송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뉴스 화면엔 도시 곳곳에 늘어난 시신 트럭과 관이 등장했다. 죽음이 삶의 천막을 찢고 들어온 듯 서늘하고 일상적인 장면을 보며, 흘린 듯 장의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장의사 케이틀린 도티를 소개한다. 온종일 뼈 먼지를 호흡하고, 가끔은 인간 지방이 녹아내린 기름에 온몸이 흠뻑 젖는 여자.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하루에도 수십 구씩 냉장에서 꺼낸 각양각색의 눈뜩 시체를 '처리'하며, 뜨거운 화장로 한가운데서 좋은 죽음을 사색하는 장례 숙련공. 1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 '장의사에게 물어보세요(Ask A Mortician)'의 운영자.

그가 쓴, 화장터와 장의사의 일에 관한 으스스하고 웃긴 르포르타주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이라는 책을 읽으며, 나는 근래 가장 많이 웃고 또 울었다.

침침이 쌓인 시체 박스를 화장로로 옮기며 케이틀린은 다종다양한 인간군상과 만난다.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다가 평화롭게 죽은 할머니부터 뒷골목에서 부패한 마약 중독자 청년까지, 곱팡이가 퍼진 시신, 늘

처럼 변해버린 의사자... 한 구 한 구가 그에게 모험이다.

담대하고 사려 깊은 장의사는 우리가 궁금했지만, 결코 그런 줄 몰랐던 장소로 우리를 데려간다. 아침 8시 반에 출근해 레토르트(화장로를 지칭하는 장례업계 은어)를 달구고, 갓 죽은 시체들의 벌어진 입을 접착제로 붙이고, 화장로에서 불타는 두개골을 응시하다, 유족에게 뺨가루를 전달하고 오후 5시면 인간 먼지를 뒤집어쓴 채 퇴근하는 장의사 라이프라니.

화장터엔 인간만사가 다 있다. 아끼고 돌보며 평생을 지내다 뺨가루까지 합쳐달라는 애절한 부부부터 9살 죽은 딸의 장례비를 백화점 카드로 결제하려는 철없는 부모까지.

어린 시절 쇼핑물에서 추락사를 목격한 그녀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기 위해

죽음을 공부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중세사를 전공한 후 실전을 위해 찾아가던 첫 직장이 시체를 태우는 '웨스트윈드' 화장터였다.

솔직하며 철학적이며 참여적인 실전 장례 리포트를 읽는 동안, 내가 죽을 거라는 사실이 손에 잡힐 것처럼 느껴졌다. 신기하게도 그것은 두려움보다는 안도였다.

케이틀린 도티와의 인터뷰는 서면과 음성이 만난 리드미컬한 크로스오버 음악 같았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였다. '우리는 다 죽는다'와 '사랑하는 이의 시체를 모른 채 하지 말라'. 시체를 태우며 얻은 결론에 따르면 '죽음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천천히 우주로 이동 중인 상태였다.'

-화장장이라는 공간은

당신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화장장에 있다 보면 죽음을 들이마시게 돼요. 삶을 호흡하면서 죽음을 마시는 거죠. 20대의 저는 시체를 태워서 받는 월급으로 생활했어요. 사람 먼지를 뒤집어쓰고 살았죠."

-시체를 방부처리 하고 태우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상상보다 더 많은 창자와 피, 지방이 있어요. 방부처리사 브루스가 한 남자의 움푹 팬 가슴에서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심장 주위의 노란 기름때를 보라구. 패스트푸드만 먹으면 이렇게 돼!' 보통 덩치 큰 사람은 더 빨리 부패해요. 화장할 땐 체지방이 많

▲ 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장의사에게 물어보세요(Ask A Mortician)'를 운영중인 LA 장의사 케이틀린 도티(Caitlin Dougherty).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이라는 책을 썼다./사진=케이틀린 도티

은 사람을 먼저 해요. 체지방이 없는 몸집이 작고 연로한 노인들은 하루가 끝나는 시간에 들어갑니다."

-당신이 만난 첫 시신은 어떤 모습이었지요?

"바이런이란 이름의 노인이었어요. 두 발끝에 꼬리표가 붙어있었어요. 두 눈은 고인 연못 같았고 입은 벌어진 채 일그러져 있었죠. 분홍색 면도기를 대고 죽기 직전 며칠간 자란 까칠한 수염을 미는 게 나의 첫 임무였어요. 그분은 두 시간 동안 타올랐고 나는 잠잠을 끼고

화장로에서 파스한 두개골을 부서뜨렸어요. 회계사이자 아버지였던 바이런은 그 순간 완전히 과거 시제가 됐 습니다."

케이틀린은 자신이 시체, 장례식, 슬픔 같은 죽음의 모든 면에 끌렸다고 했다. 수많은 시체가 삶과 영원의 중간 지점에서 그를 거쳐 갔다.

-사람들이 장의사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물어보나요?

"정말 다양해요. '우리 어머니의 해골을 벽난로 위에 안치해도 되나요?' '아버지를 활활 타는 바이킹 배에 실어 화장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와 같은 황당한 질문도 받고요. 대개는 눈에 보이는 장례식 이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요.

'화장하면 실제로 우리 엄마의 몸은 어떻게 되는 걸까?' '방부처리액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고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을까?' '우리 아빠가 무덤에 묻히고 나면 1년 뒤 그 시신은 어떤 모습일까?' 시체의 변화에 관한 질문들이죠. 유족이 볼 수 없는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장례 회사는 당신에게 좋은 직장이었습니까? 그 일을 자랑스러워했나요?

"저는 제가 했던 작업을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체와 인간 먼지를 다뤘던 경험은 제가 가졌던 직업 중 최고였어요. 지금은 저는 제 소유의 장례식장을 경영하고 있지만, 종종 화장장에서 하던 구체적인 일이 그립습니다. 매번 새로운 시체 박스를 만나고 태우는 일은 죽음과 순수하게 연결돼 있었어요.

하루가 시작되면 저 혼자서 시신을 가져다가 화장로에 넣고, 유골을 꺼내 마지막 분쇄작업까지 마친 후 유골함에 담아 유족들에게 드렸어요. 한 사람의 시신이 유골함으로 옮겨지기까지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 23살이었어요. 젊은 제가 그런 엄청난 일을, 권한을 갖고 해냈다는 게 믿... (3 페이지에서 계속)

▲ 그녀는 하와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시카고 대학에서 중세사를 공부한 후 실전 죽음을 공부하기 샌프란시스코의 화장장에 취직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다민족 선교를 지향하는

캘거리 한우리교회
Calgary All Nations Community Church

우리는 복음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 민족을 향해나가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담임목사:김재욱 | 교육,선교 담당:이강훈 목사, 이한준 전도사 | 차세대 목사: 이인예배,양육 담당 목사: 오상학

주 일 예배	1부(교사)예배	오전 9시 30분
	2부 대예배	오전 11시
	교회학교 예배	오전 11시
	청년예배(KM/EM)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7:30분	
화요일예배	저녁 7시	
토요일예배	오전 7:00	

www.calgaryhanwoori.com

예배처소 : Mount Royal University(Jenkins Theatre)
 4825 Mt. Royal Gate SW. Calgary AB. T3E 6K6

태양 정육·반찬·떡집

정육	반찬	떡류
LA갈비, 찜갈비, 소불고기, 제육볶음, 삼겹살, 목살, 사골	대패삼겹살, 길이삼겹살, 양념갈비, 돼지불고기, 양념불고기, 꼬리, 샤브샤브	김치, 부추김치, 무말랭이, 고추무침, 오징어젓, 마른오징어무침, 멸치볶음
		떡국떡, 백설기, 현미절편, 가래떡, 콩백설기, 현미설기, 인절, 무지개떡, 절편, 공찰떡, 송편, 떡볶이떡, 현미공찰떡, 팔시루떡, 현미떡국떡, 녹두시루떡, 현미가래떡

"매달 두번째 화요일 휴업"

떡주문은 2~3일전에 해주십시오!

영업시간 : 월~토 11:00AM~7:00PM / 일요일, 할리데이 11:00AM~4:00PM

117, 15th Ave. SE Calgary AB
TEL. 403-233-2252 / 613-5977